

예배순서

| | | |
|---------|---|---------|
| *경배와 찬양 | 나는 예배자입니다 /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 기뻐하며 경배하세 Holy Forever /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 다같이 |
| 대표기도 | | 전춘우 |
| *성경봉독 | 요일 5:1~4 | 강민석 |
| 말씀 | 세상을 이기는 믿음 | 이은상 선교사 |
| 응답찬양 | 주님 나를 부르시니 | 다같이 |
| *봉헌 | | 다같이 |
| *봉헌기도 | | 김상범 목사 |
| 광고 및 환영 | | 김태동 |
| *파송찬양 | 깊어진 삶을 주께 | 다같이 |
| *축도 | | 이은상 선교사 |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오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위를 내가 걸읍니다

가을을 보내며 (김상범 목사)

저는 어스틴을 꽤 좋아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의 삶의 환경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아니 감사해야 하는 쾌적한 환경을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스틴에서 사는 데 한 두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어 왔는데, 그 중 하나가 멋진 가을 풍경을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을을 참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낸 동네는 가을이면 은행잎이 흐드러지는 곳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쌓인 낙엽 속으로 뛰어 들어가 개구장이 짓 하며 보내던 아련한 추억이 제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생이 된 저는 보통의 대학생과는 다르게 회색 정복을 입고 손에는 007 가방을 든 채 50년 이상 된 아름드리 플라타너스 길을 걷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관학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뽀뽀한 통쾌감 속에서의 자유함을 저는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장년이 되어 스무 번 넘게 이사하는 동안 전국 방방 곳곳 웬만한 지역에 안 살아본 적 없는 떠돌이 삶에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 하나는 현지인만 아는 절경 포인트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의最愛 장소는 어김없이 가을 단풍 포인트였어요. 이런 제게 어스틴의 가을은 참 아쉬웠습니다. 잎들의 색이 바랜다 싶더니 곧 떨어져 가지만 앙상해지는 가을 모습은 뭔가 절정이 빠진 미완성의 가을 느낌이었습니다.

올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을의 늦 자락에서 단풍을 훌쩍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에 교회를 함께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라는 사역의 환경을 떠나 마치 어릴 적 소풍 가는 약간의 설렘을 갖고 버지니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처음 저를 반겨 준 것은 도로가의 낙엽과 같은 가을 풍경이었습니다. 코 끝에 스치는 알싸한 늦가을 바람 느낌, 오고 가는 행인들의 옷 깃을 세운 차림새, 방치된 듯 자연스럽지만 나름 정리된 주변 가을 숲들의 느낌은 유난히 가을을 타는 저에게 추억의 여행과도 같았습니다.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교회는 유난히 통유리가 많은 예쁜 교회였습니다. 중간 중간 쉬는 시간에 유리창을 통해 볼 수 있는 바깥의 완연한 가을 느낌도 이번 컨퍼런스의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신 목사님들 섬기기 위해 유니폼까지 맞춰 입고 나와 주신 귀한 바리스타 팀원 분들이 직접 내린 갓 볶은 커피 한잔의 커피향을 느끼며, 나는 정말 오랜만에 가을의 경취에 깊이 젖어 들었습니다.

어느 덧 어스틴으로 복귀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시간 전에 만나질 정도 꼴 같은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주변의 다른 어떤 관광명소보다도 단풍산을 가고 싶었습니다. 마침 함께 하신 목사님들도 그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셔서 우리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운틴 체난도 국립공원을 들렸습니다. 그 곳은 능선길을 따라 약 110마일 정도를 차로 이동하며 주변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그림 같은 나무길도 지나고, 예쁜 바위들과 바위틈을 뚫고 나온 강인한 나무들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능선 아래로 펼쳐진 단풍진 나무숲을 보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째 lookout을 들렀을 때쯤 문득 제게 옛 추억의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교가 되어 처음 부임했던 강원도 양구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은 양구의 산들, 대암산, 대우산, 고대산 풍경과 너무나도 흡사했던 것입니다. 제가 매일 작전을 하던 그 곳,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도 없이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산자락만 보며 답답함에 한 숨 쉬었던 그 곳, 사랑하는 여자 친구 (지금의 아내)와 저를 소양강과 국내 최장 꼬부랑 길인 오우리 길로 갈라 놓은 것만 같은 야속한 그 땅의 모습이 지금 내 눈 앞에 펼쳐진 미국의 국립공원과 똑 같다니!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장교의 초임지는 참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보고 배우는 것도 큰 차이가 있어 누구든지 커리어의 시각을 가능하면 수도권에서 시작하고 싶어합니다. 첫 부임지로 모두가 회피하고 싶은 세 곳이 있는데, 인제, 원동, 양구였습니다. 하필 저는 그 곳으로 배치를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 십대의 젊은 저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하필 이런 곳이에요? 저는 곧 결혼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는 위탁교육도 받고 싶은데요...” 제 속에는 끝도 없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곳에서의 삶이 제게 감사로 다가왔을 리가 없었습니다. 외박 나와서 상봉 터미널에서 여자 친구를 두고 혼자 버스로 복귀하는 길은 항상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길 같았고, 그 마음은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복귀할 때조차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곳에서 약 삼 년 반을 채우고 나올 때는 마치 감옥 출소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단 한번도 그 곳이 예쁘다는 생각을 평생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오십이 넘어 태평양을 건너온 미국에서, 그것도 버지니아의 유명한 국립공원에서 저는 지금 양구의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한 소리가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아, 니가 하도 가을을 좋아해서 내가 그 곳으로 보냈었던단.”

목회컬럼

막막해진 제 가슴에선 그 동안 감사하지 못한 저의 모습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좀 알게 해 주시지... 전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날 미워하는 줄만 알았어요. 절 너무 강하게만 키우시려는 걸로 오해했어요.” 잠시 후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원망할 때 참 섭섭하셨겠어요.” 그 때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행여나 주변 분들이 보실까 저는 조용히 숨겼습니다.

만약, 그 때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양구에서의 제 삼 년 반은, 아니 저의 커리어는 분명 광장히 달랐을 것입니다. 험한 곳에서도 아름다움을 누렸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의 환경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베푸신 것은 아닐까? 내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 곳에서의 삶도 달라지지 않을까? 훗날 비슷한 후회는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곳까지 생각이 발전하였습니다. 이 십년 후에는 이 시간을 돌아보며 좀 더 성숙한 아들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단풍은 잎이 생명을 다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결국, 한 마디로 노화의 결과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늙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풍의 그 영롱한 자태는 봄의 싱그러움과 여름의 무성함을 지나야만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노애락의 롤러코스터를 다 지난 후에야 단풍과 같은 아름다움이 자기도 모르게 발현됩니다. 그리고... 마치 낙엽이 떨어지듯, 삶이 끝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훨훨 돌아가면 됩니다.

오십이 넘으니 저도 제 삶의 빛깔을 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생깁니다. 기왕이면 내장산 단풍처럼 영롱한 색깔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게도 적지 않은 삶의 격정과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단풍잎과 같은 빛날 낼 수 있다면... 전 그것으로 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환경을 감사히 받아들이자고 제 자신에게 말해봅니다. 삼 십년 전 실재했던 그 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시간도 내 인생의 단풍을 만드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요? 쉰년도의 영롱한 그 낙엽빛처럼...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방문 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및 협조부탁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찬양이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가급적 5분전까지 참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과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좌석 가운데쪽은 가급적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팀원 모집

라이드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김윤환)
찬양팀 - 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드럼 (문의: 전하영)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미디어팀 - 주보 편집에 관심 있으신 분 (문의: 안혜성)

감사

-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은상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Bridge" UT 캠퍼스 사역

- 매주 목 11:30-1:30, SSB G1.106 (맛있는 점심 제공)
- AKPC 청년뿐 아니라 주변에 다른 교회, 비기독교인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Just Show Up 성경읽기

- 매주 화 저녁 8시 (중)으로 진행중
- 지금이라도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조학영, 안혜성
자매에게 연락)

세례/입교, 유아세례

- 11월 12일 (주일) 2부 예배시간
- 문답 : 11월 11일(토) 오후 2시, 교회

추수감사절

- 11월 19일 (주일)-감사절 만찬이 준비됩니다.

추수감사절 브레이크

- 11/22~25 기간동안 교회 건물을 Close 합니다.
- 굿모닝 말씀산책, 토요 무릎기도회 쉽니다.

도서부

- 도서 정리중입니다. 잉여 도서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11월 호

- 로비에서 (권당 5불)

AKPC Thanksgiving Food Drive

- Oct 29 - Nov 17 Collecting canned good
- Give thanks and give to the community in need
- We need : Canned food, Non perishable food, Boxed food, Cash/Gift Card
donations

결혼소식

- 전승엽 형제 /안혜성 자매 (11월 3일)

AKPC 2023 Christmas Banquet

- 12/10 주일 예배 후
- 성탄축하무대 싸인업
- 성탄축하무대 예시 (노래, 악기, 춤, 시, 수화, skit 등등...)



예배팀 신청 QR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금요기도모임
청년목장
Good Morning 말씀산책
토요무릎기도회
주일 1pm
금 7pm
주중 또는 예배후
월-금 6:30am
토 6:30am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라이드팀장 김윤환 michaelssdogani@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AKPC
PSALM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PSALM AKPC
INSTAGRAM | @PSALM_AKPC

